

『언 에듀케이션』의 영화 각색

- 1960년대 영국 사회상 재현한 시대극 -

최 지 안*

[국문초록]

본고는 문학텍스트의 영화적 수용 및 각색을 린 바버의 『언 에듀케이션』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원작이 주인공의 사회 경험을 통한 인지적 도덕적 성숙을 다룬다는 점에서 교양소설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닉 혼비가 각색하고 론 세르픽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는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며 원작의 경계를 확장하고 재구성한다. 영화는 원작과 달리, 한 개인의 성장담 보다는 원작의 배경을 이루는 1960년대 런던의 사회상을 전경에 배치함으로써 시대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영화는 원작의 근간이 되는 사회이동의 모티브 대신 60년대라는 특수한 맥락 내에서 주인공 제니의 영국 중산층의 가치와 이상에 대한 반항과 탈주가 갖는 함의를 그려내는데 초점을 둔다. 즉 제니는 대항문화 및 정치적 이상주의로 대변되는 당대 런던의 진보적인 문화와 시대정신을 체현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세르픽의 영화가 그 장르 고유의 언어체계인

*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조교수

주제어: 린 바버, 『언 에듀케이션』, 문학과 영화, 각색, 시대극, 런던, 1960년대
Lynn Barber, *An Education*, literature and film, adaptation, London, the 1960s

각본, 촬영, 미장센, 편집 등을 통해 어떻게 원작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지 분석한다.

1. 서론

본고는 문학텍스트의 영화적 수용 및 각색을 영국의 작가-저널리스트 린 바버(Lynn Barber)의 『언 에듀케이션』(*An Education*, 2009)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언 에듀케이션』은 작가가 런던의 문학지 『그랜타』(*Granta*)에 게재한 동명의 자전적 수필을 장편으로 개작한 회고록으로서, 소설가 닉 혼비(Nick Hornby)가 각색하고 덴마크의 여성감독 론 셰르픽(Lone Scherfig)이 연출한 비비씨 필름즈(BBC Films)의 영화로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사이트 앤 사운드』(*Sight and Sound*) 등 주요 매체의 호평을 받았으며 영국 아카데미, 베를린 영화제, 선댄스 영화제 등에서 수상하였고, 그외 국제 비평가 협회상 후보 및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 각색상, 여우주연 등 세 부문의 후보로 지명되는 등 비평적,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바버의 원작이 주인공의 입사적 시련 혹은 사회 경험을 통한 인지적 도덕적 성숙을 플롯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교양소설의 전통 위에 서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영화는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며 원작의 경계를 확장하고 재구성한다. 우선 영화는 원작과 달리, 한 개인의 성장담 보다는 원작의 배경을 이루는 1960년대 런던의 사회상과 문화를 작품의 전경에 배치시킴으로써 시대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영화는 원작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 이동’(social mobility) 모티브를 암시적으로 처리하는데 그치고 그 대신 6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 배경과 맥락 내에서 주인공 제니의, 영국 중산층의 가치와 이상에 대한 반항과 탈주가 갖는 함의를 그려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즉 제니는 50년대

의 전후(戰後) 런던과는 뚜렷이 변별되는 지점으로서의 60년대 런던의 진보적인 문화와 시대정신을 체현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본고는 이런 점들에 주목하면서 세르픽의 영화가 그 장르 고유의 언어체계인 각본, 촬영, 미장센(mise-en-scène), 편집, 연기 등을 통해 어떻게 원작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바버의 회고록이 출간되었을 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우선 이 작품이 지닌 예술성 때문이다. 『언 에듀케이션』은 신랄하고 기지 넘치는, 때로는 자기풍자적인 잘 쓰인 한 편의 에세이로서, 전후 경제부흥기 영국의 사회상, 특히 런던 중산층의 삶과 문화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담고 있다. 1961년의 런던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이 청소년시절 경험한 고통스런 미망(迷妄)을 통해 이르게 된 ‘비(非)감정교육’을 다룬다.¹⁾ 16세의 바버는 어느 날 하학 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그녀 앞에 차를 세우고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한 30대 후반의 부유층 신사(실은 신원이 불분명하며 나중에야 정체가 밝혀지는) 사이먼 골드만과 기이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이것은 그녀의 인생행로에 지울 수 없는 한 장으로 남게 된다.

작가의 진술은 일견 자기연민 없이 절제되어 있지만, 그 근처에는 자신이 체험한 인간의 기만적 속성, 무엇보다 자기기만에 대한 회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딸을 지켜주지 못한 양친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선연하다. 바버는 노동계급 출신인 그의 부친의 사회적 배경과, 모친의 제한적인 교양과 식견, 문화적 허영심을 가감 없이 들추어낸다. 바버

1) Peter Bradshaw (2009), "An Education", *The Guardian*.

가 끝내 극복하지 못한 혈육에 대한 깊은 미움과 경멸은 이 회고록에서 가장 쓰라린 대목이기도 하다. 바버의 부모는 교육을 통해 중산층 사회에 진입한 첫 세대였다. 그의 부친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하급 공무원으로 경력을 시작하여, 이후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의 법학사를 취득하고 공직사회에서 승승장구했다. 모친은 런던 아카데미(London Academy of Music and Dramatic Art) 출신으로서 발성법 강사를 거쳐 중등학교 교원을 지냈다. 그들은 딸이 자신들이 이룩한 것보다 더 높은 사회적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에 전력을 쏟았다. 바버는, ‘그들의 종교는 교육, 교육, 교육’이었다고 진술한다.²⁾

[My parents] were first-generation immigrants to the middle class and all their hopes were invested in me, their only child. They had no relatives in London, and no friends who ever came to the house [...] all they talked about at home was me, and specifically my schoolwork. [...] I had been reared from the cradle to pass every possible exam, gain every possible scholarship and go to the best possible university. By the time I met Simon, I was well on track. I had a scholarship to an independent school [...], a royal flush of O-levels, and my teachers predicted that I would easily win a place at Oxford to read English.

나의 부모님은 중산층 진입 1세대로서 모든 희망을 외동딸인 나에게 거셨다. 그들은 런던에 친척이 없었고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들도 없었다. 그들이 집에서 하는 대화는 온통 나 특히 나의 학업에 관한 것이었다. 소시적부터 나는 가능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가능한 모든 장학금을 받고, 가능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도록 키워졌다. 사이먼을 만났을 무렵 나는 이 궤도에 잘 진입해 있었다. 나는 명문사립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중등교육 자격 시험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 선생님들은 내가 옥스퍼드대학 영문과에 쉽게 들

2) Lynn Barber (2009), *An Education*, London: Penguin, p. 12. 이후 텍스트에서 인용할 경우 괄호 속에 면수만 표시하기로 함.

어가리라고 예상하셨다.³⁾

바버 역시 이런 열성적인 부모의 교육관에 적응하고 이를 내면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애쉬포드에서 런던의 중산층 교외인 트위켄햄으로 이사한 바버의 부모는 딸을 햄튼의 명문사립학교(LEH)에 진학시키는데, 여기서 바버는 처음으로 자신과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에 노출된다. 이들 또래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경쟁, 과시, 구별짓기 양상은 영국 중산층 사회의 축약판과도 같으며, 바버는 여기서 비교적 성공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가정환경으로는 도저히 능가할 수 없는 부유층 출신의 동기들 틈에서, 어린 바버가 스스로를 다소 과장되게 ‘극빈자이지만 가장 똑똑한 아이’로 당당히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유지, 강화하고 소속집단의 인정을 획득한 것은, 그녀가 ‘교육을 통한 입신’이라는 부모의 철학을 일찍부터 학습하고 모델링했음을 뜻한다.

The snobbery at LEH was all the more fierce because it was conducted within such a tiny social range: the Oxshott girls despised the Ewell girls who despised the Kingston girls; the Jaguar owners despised the Wolseley owners [...] I could see that there was no way I could win in the snobbery stakes [...] so I didn't bother lying but just told everyone I was a pauper and the cleverest girl in the school [...] And actually it paid off. [...] It was a great day for me when we moved up to the main school and *three* girls competed to sit next to me in class. [...] I basked in my first taste of popularity.

LEH에서의 속물주의는 학교라는 극히 작은 사회범위 안에서 행해진 것이기에 그만큼 더 치열했다. 옥쇼트 출신들은 유웰 출신들을, 유웰 출신들은 다시 킹스톤 출신들을 경멸했다. 재규어를 가진 집 아이들은 울슬리를 가진 집 아이들을 경멸했다. 이 속물적 경쟁

3) Lynn Barber (2009), "My Harsh Lesson in Love and Life", *The Observer*.

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본 나는 거짓말할 것 없이 아예 모두에게 나는 극빈자이지만 가장 똑똑한 아이라고 선언했다. 실제 이것은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본과로 진급하던 날은 내게 대단한 날이었는데 무려 세 명의 아이들이 서로 내 옆에 앉겠다고 겨루었던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맛보는 인기를 한껏 누렸다.⁴⁾

바버는 그의 집안의 문화를 근면, 절제, 검약, 내숭, 근신 등을 골자로 하는 ‘전형적인 영국 하위중단계급 청교도주의’로 정의한다(58). 바버의 어머니가 한때 발성법 강사였다는 사실 또한 이들의 계급문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바버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직접 발성을 배웠는데, 50년대 영국에서 성행하던 이런 강습의 목적은 명목상 대중연설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었으나 실은 서민적 말씨를 교정하고 ‘상류층처럼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었다.

When my mother said of someone ‘She has a bit of an accent’ she meant, not a regional accent, nor even a cockney accent, but the most fearful accent of all, which was Common. [...] The aim of elocution lessons was to eradicate Common and teach shopgirls to talk like ladies, though what they invariably ended up talking like was shopgirls with pretensions.

어머니가 누군가를 일러 ‘그녀는 약간의 악센트가 있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지방이나 런던 토박이 악센트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센트인 서민의 악센트를 뜻하는 것이었다. 발성법 교습의 목적은 바로 이 서민적 말씨를 뿌리 뽑고 여점원들에게 숙녀처럼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있었다. 비록 결과적으로 그들이 습득한 것은, 예외없이, 허세부리는 여점원의 말투였지만 말이다.⁵⁾

바버의 어머니가 거의 강박적으로 딸에게 발성법을 가르친 것은, 이들

4) Lynn Barber (2009), *An Education*, pp. 15-16.

5) Lynn Barber (2009), *An Education*, p. 18.

가족의 끊임없는 ‘지위를 향한 투쟁’(struggle for status)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란 정치적 자격 및 법적, 제도적 위계와 관계되는 동시에 ‘복장, 언어, 세계관, 신체적 태도’ 등 문화적 습속 즉 스타일 로도 개념화될 수 있다.⁶⁾ 바버의 어머니는 중산층 진입 1세대로서 자신의 애매한 사회적 지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녀는 영국이라는 오랜 신분사회에서 계급이란 경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습 및 문화의 문제이며, 후자는 필연적으로 언어생활에 노정된다는 것, 즉 ‘언어의 계급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발화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부의 기호’이자 ‘권위의 기호’인 것이다.⁷⁾

바버의 부모가 딸과는 상당한 나이차가 있는 사이먼에게 호감을 갖고 그들의 교제를 장려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먼은 처음부터 그들과는 다른 세계에 속한 이로서 나타나 그들의 환심을 산다. 그는 취향, 교양, 재력을 두루 갖춘 유한계급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으로 확고한 발판 위에 서 있다. 그는 바버의 부모에게 꽃과 와인을 선물하고, 거실에 앉아 함께 대화하며 그들의 견해에 ‘진정으로 관심있는 듯’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다(36).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한미한 출신에 대한 자의식 탓에 자기확신이 부족했던 그들의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런던에 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것 외에는 나이, 학력, 가족, 심지어 주소나 전화번호에 이르기까지 신상에 관해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낯선 남자에게 바버의 부모가 빠져든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사이먼과의 교제는, 하위중간계급 문화에 익숙하던 바버에게 ‘취향’이란 곧 계급의 지표⁸⁾임을 깨닫게 한다. 그는 바버의 연극부 공연일에 호스스런 부케를 보내오고, 첫 데이트 때 그녀를 메릴본 구(區)의 고급 음

6) Bryan S. Turner (1988), *Statu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66.

7) Pierre Bourdieu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pp. 154-55.

8) Pierre Bourdieu (2010), *Distinction*, London: Routledge, p. 1.

식점에 데려간다. 주말 저녁이면 위그모어 홀의 고전음악회 혹은 첼시의 유럽영화 상영관으로 안내한다. 이와 같은 런던 웨스트엔드 데이트는 급기야 파리, 암스테르담, 브뤼헤 등지에서의 외국여행으로까지 이어진다. 바버에게 이 모든 경험은 장차 그녀의 것이 될 수도 있는 상류사회의 생활양식을 예시하는 것으로 실로 ‘눈부신’ 것이었다(34). 그 매혹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것이어서, 그녀는 직관적으로 그의 부정직한 실체를 꿰뚫어 보면서도, 이 ‘자주 말씨가 바뀌며 나이를 속이고 말의 아귀가 맞지 않는, 키작고 얼굴이 길고 다리는 벌어진 추한 외모의 남자’와의 교제를 이어나간다(40). 즉 학교의 안과 밖에서 각각 입시생/사교계 여성이라는 두 개의 양립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이한 이중생활을 계속해 나간 것이다. 영리한 바버는 이 관계가 본질적으로 허상에 기대고 있으며 자신은 역할극의 한 ‘배역’을 수행하고 있을 뿐임을 알고 있다(37). 그리고 예정된 파국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 모든 것이 가공의 현실임을 알면서도 그 환영을 놓지 않으려 했던 스스로의 자기기만에 있었음을 고백한다(41).

마침내 사이먼이 청혼을 하자, 바버의 부모는 그녀에게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한다. 바버는 그의 부모의 남다른 교육열이 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도구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이에 환멸을 느낀다. 명문대학의 학위를 사회이동의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계급상승의 지렛대로서의 결혼은 결국 옥스퍼드 교육의 등가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사이먼이 이미 처자가 있는 유부남이며 바버와의 중혼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이는 것은 당사자인 바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부모이다. 이 사건은 물론 바버에게도 커다란 심리적 외상을 남기게 된다. 지금까지 의심해본 적이 없었던 부모의 가치관과 도덕적 권위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된 것이다. 작가는 사랑에 대한 ‘환멸’—가족 간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을 모두 포함해—이 그의 전 인생을 조건 지었음을 시사한다.⁹⁾ 자신은 너무 이른 나이에 인간의 불가해성, 즉 사람이란 알 수 없는 심연을 지닌 존재이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작가-저널리스트로서의 자신의 인간관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What did I get from Simon? An education [...] I learned a lot in my two years with Simon. I learned about expensive restaurants and luxury hotels and foreign travel, I learned about antiques and Bergman films and classical music. [...] But there were other lessons Simon taught me that I regret learning. I learned not to trust people [...] I learned to suspect that anyone and everyone is capable of 'living a lie'. I came to believe that other people—even when you think you know them well—are ultimately unknowable. Learning all this was a good basis for my subsequent career as an interviewer, but not, I think, for life. It made me too wary, too cautious, too ungiving. I was damaged by my education.

사이먼에게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교육이다. 그와의 2년간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고급 레스토랑, 호화로운 호텔, 해외여행에 대해 배웠고, 고미술품과 베리만의 영화와 고전음악에 대해 배웠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을 후회하는 다른 교훈들이 있다. 나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그 누구든 거짓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은지 의심하도록 배웠다. 나는 타인이란, 심지어 잘 안다고 여기는 이들까지도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이후 나의 인터뷰어로서의 경력에 훌륭한 토대가 되었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나를 너무 경계하고 주의하며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나의 교육에 의해 해를 입은 것이다.¹⁰⁾

9) Anne Chisholm (2009), "An Education by Lynn Barber: Review", *The Telegraph*.

10) Lynn Barber (2009), *An Education*, pp. 55-56.

따라서 때로 보석의 파편처럼 빛나는 기지와 블랙유머에도 불구하고, 바버의 회고록은 삶과 인간에 대한 황폐하고 우울한 전망을 담은 책이며, ‘순수성 상실의 비극’(a tragedy of innocence lost)으로 읽힐 수 있다.¹¹⁾

그러나 원작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는 이러한 비극성은 영화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혼비의 각본은 원작에 담긴 ‘인생의 부조리함’이라는 주제를 견지하면서도 그 책의 가장 어두운 진실로부터는 비켜서 있다. 무엇보다도 결말의 수정은 원작과 영화 간의 세계관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바버의 회고록이, 인간이란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영역 저편에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terra incognita)라는 씁쓸한 불가지론으로 끝맺는데 반해, 영화는 주인공의 대학진학 즉 또 다른 지적 항해의 시작으로 막을 내린다. 옥스퍼드대학의 ‘꿈꾸는 침탑들’의 파노라마를 지배하는 웅장한 로튼다를 안정적인 아이 레벨 앵글의 와이드 쇼트로 제시함으로써, 이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이 상징하는 주지주의, 혹은 이성과 합리성의 우위를 암시하며 원작의 비관주의를 넘어선다(사진 1).



[사진 1]

원작의 핵심 관심사인 뒤틀린 인간관계나 인간의 어두운 본성에 대한 탐구는 영화에서 사상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원작이 생생한 필치로 살

11) Anne Chisholm (2009).

려낸 신랄한 유머와 날선 아이러니도 힘을 잃어버린 감이 있다. 원작을 특징짓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일체의 감상없이 냉정한 태도 및 비판적 거리두기는 영화에서 공감과 이해의 시선으로 대체되었다. 원작의 인물 설정이 다소 평면적인데 비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한층 더 입체적인 성격을 부여받았으며 도식적인 선악의 이분법에 갇히지 않는다.¹²⁾ 따라서 영화는 이들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유보한다. 영화는 원작에서 바버의 부모에게 가해졌던 가차없는 조롱과 경멸을 거두어들이고, 그들이 서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영악하고 당돌한 16세의 바버는, 첼로 연주자이자 라파엘전파의 그림을 좋아하는 우아하고도 생기 넘치는 제니로 재탄생했다. 희망과 불안, 유약함과 강인함, 일탈의 충동과 내면의 우아함 등 모순된 자질들을 한 인물 안에 고스란히 체현하는 제니는 극의 진행과 함께 감정적 신체적으로 미묘하게 성숙해간다. 이에 조용하여, 영화 전반부 일정한 거리에서 제니를 객관적으로 관망하던 카메라(사진 2)는 드라마가 발전함에 따라 피사체와의 거리를 점진적으로 좁혀나가며 관객으로부터 주인공에 대한 심화된 정서적 반응과 동일시를 유도한다(사진 3).



[사진 2]

12) 일례로, 제니는 옥스퍼드에서 데이빗과 그의 친구 대니가 스피드(Speed)의 고지도를 훔치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과 혼란을 겪지만 결국 이를 묵인한다. 이는 그녀를 윤리적으로 복잡한 캐릭터로 만든다.



[사진 3]

원작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변형이 가해진 인물은 영화에서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이먼이다. 바버는 회고록에서 사이먼이 5-60년대 런던의 악명 높은 유대인 부동산 개발업자 피터 라크만(Peter Rachman)의 사업동료였음을 밝히며, 그들이 벌인 불법적인 사업행각에 대해 상술하지만 영화에서는 결정적으로 사이먼의 라크만 커넥션이 주변화되어있다.¹³⁾ 또한 원작은, 그가 자신의 행위가 타자에게 끼칠 잠재적인 해악에 대해 무감각한 사이코패스이자 페도필리아 성향의 소유자임을 암시하지만 이 역시 영화에서는 탈각되었다. 혼비의 각본은 데이빗을 복합적인 캐릭터로 재현한다. 원작에서 사이먼이 교활하고 약탈적인 악인으로 등장하는 반면, 영화 대본상의 데이빗은 이와는 다른 유형의

13) 라크만은 빈민가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임대료 착취행위를 뜻하는 용어 라크마니즘(Rachmanism)을 탄생시킨 장본인으로서 그의 흥망은 5-60년대 런던 주택시장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차대전의 시설파괴 및 전후 영연방국가로부터의 대량이민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급증하자 런던의 부동산 임대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라크만을 비롯한 일부 악덕업자들은 57년 제정된 임대법(Rent Act)을 근거로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을 감행하는 한편, 기존의 장기세입자 축출을 위해 불법수단을 동원하였다. 라크만은 63년 프로푸모 스캔들(Profumo Affair)에 그의 정부였던 크리스틴 킬러(Christine Keeler)가 연루된 것을 계기로 언론에 노출되었고, 이후 민간주도의 주택시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64년 선출된 노동당 정부는 임대료 통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Roy Porter (1995), *London: A Social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51-52).

인물로 제시된다. 테라스 장면, 도주 장면 등의 주요 시퀀스에서 데이빗은, 사회적으로 노련하지 못하며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유약함과 상처입기 쉬운 면모를 보인다. 출신 학교를 묻는 제니의 질문에 대해 ‘인생이라는 대학(University of Life)을 다녔으나 그다지 좋은 학위를 받지는 못했다’는 그의 고백, 그리고 자신은 제니와 같은 우등생이 아니므로 다른 방식으로라도 영리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의 뚝뚝하지 못한 변명이 시사하듯, 그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으며 애초에 길을 잘못 들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버린 삶의 굴레 안에서 표류하는 자에 가깝다.¹⁴⁾ 영화에서 데이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이에 대한 적절한 시각화이다(사진 4). 외부 세계를 배제하는 화면의 딱 찬 프레임 및 차체의 프레임에 의해 이중으로 제한된 그를 클로즈업으로 부각한 이 쇼트는 그의 숙명을 함축하며 그가 사회적 정서적으로 출구 없는 존재임을 환기시킨다.



[사진 4]

데이빗 역을 맡은 피터 사스가드(Peter Sarsgaard)는 ‘잘 조율되고 층위가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이 인물이 지닌 모순적인 자질들을 풍부하게 표현해낸다.¹⁵⁾ 그는 영화 도입부에 제니, 그녀의 부모, 그리고 관객의 호

14) Nick Hornby (2009), *An Education: the Screenplay*, New York: Riverhead, pp. 48, 119.

감을 모두 얻는 젊고 매력적인 청년으로 등장하여, 극의 진행과 함께 서서히 그 이중적 면모를 드러내면서 다시 이들로부터 자신을 소외시켜야 하는 난이도 높은 배역을 훌륭히 소화해 내었다. 그와 제니의 관계 역시 원작에서 독자를 불편하게 했던 병적인 요소가 제거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로맨스의 양상을 띤다. 영화 진행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의 추이가 설득력 있게 제시된 것은, 비약이나 과도한 연극성 없이 시종일관 절제된 속도와 미묘한 톤을 유지한 편집의 공이 크다. 편집을 맡은 바니 필링(Barney Pilling)은 조작적인 커팅보다는 고전적 편집 관습에 의존하여 실제 현장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추상화나 인위적 편집의 개입보다는 소재가 스스로 말하도록, 즉 관객이 스스로 해석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편집 방식은 원작의 일의성을 넘어서려는 이 영화의 태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으로, 원작에서 서사의 큰 줄기를 이루는 사회이동의 모티브가 영화에는 부재한다.¹⁶⁾ 원작이 작가 가족의 생활양식, 가치, 태도를 통해 50년대 영국사회 하위중간계급의 존재와 의식에 대한 일종의 사례연구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영화에는 이 부분이 소거되어 있다. 원작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발성법 강습, 야간대학 학위취득 등 계층상승과 관련된 일화들이 모두 생략되고, 제니의 가족은 처음부터 결핍 없이 안락한 런던 교외의 중산층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영화 도입부에서 두 개의 의미심장한 쇼트 — 전형적인 영국 중산층 주택가의 풍경 및 테라스 하우스를 찍은 — 에 의해 강조된다(사진 5-6). 또한 제니의 일탈은 사회적 상승의 열망보다는 오히려 진부하고 자족적인 중산층의 삶으로부터의 도주욕망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15) Sarah Lyall (2009), "A Bud About to Burst into Bloom", *The New York Times*.

16) Deborah Orr (2009), "An Education", *The Independent*.



[사진 5]



[사진 6]

어떤 의미에서 세르픽의 영화는 60년대 영국영화의 리얼리즘(Kitchen Sink Realism)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전통적인 키친 싱크 드라마¹⁷⁾가 더 나은 삶을 희구하는 노동계급 청년의 곤경과 그 극복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 작품에는 그런 전형적인 플롯이 런던 교외에 사는 중산층 여학생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대치되어 있다.¹⁸⁾ 제니는 영국 중산층의 모럴과 가치, 이상에 희의를 품고 이와는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프랑스의 사상과 예술을 동경한다. 그녀는 실존주의 철학에 경도되어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 파리를 노래한 줄리엣 그레코(Juliette Gréco)의

17) 5-60년대 영국 북부 산업도시를 배경으로 노동계급 청년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연극.

18) Peter Bradshaw (2009).

상송에 탐닉하며 탈출구를 찾는다(사진 8).



[사진 7]



[사진 8]



[사진 9]

제니가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목도하는 중산층의 협소함과 순응주의, 그리고 영국사회의 ‘세련됨의 결핍’은 그녀를 가두는 뒷과 같으며, 영화에서 이 감금의 이미지는 카메라의 위치, 화면의 구도, 등장인물의 공간배치 방식 등 여러 형식적 테크닉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예컨대 거대한 학교건물을 배경으로 한 부감시점 촬영은 피사체인 제니를 위로부터 압도하며 하나의 작은 점처럼 무력하고 미미한 존재로 보이게 한다(사진 7).¹⁹⁾ 사진 8의 카메라의 하이 앵글 역시 제니를 그녀 주위의 화려한 카펫이 상징하는 중산층의 가정환경이라는 틀에 갇힌 존재로 제시한다. 이런 폐쇄의 느낌은 정밀하게 통제되고 고도로 양식화된 세트의 닫힌 형식이나, 연속적인 창틀 등의 장애물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도 한다(사진 9). 이런 장면들은 대개 절제된 색과 로우키(low-key) 조명을 기본으로 기능적인 스타일로 촬영되어, 제니가 일상으로부터 감행한 탈주 및 그 해방감을 보여주는, 스냅사진처럼 임의적이면서도 화려하고 표현적인 장면들과 대조를 이룬다(사진 10-11).



[사진 10]

19) 이 장면은 또한 자퇴한 제니가 학교를 떠나며 느끼는 자기비하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사진 11]

『언 에듀케이션』의 각색에서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는 1960년대라는 시대 자체가 하나의 주요한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⁰⁾ 시인 필립 라킨(Philip Larkin)이 그의 시 『경이적인 해』(Annus Mirabilis, 1967)에서 리버럴한 영국으로의 이행기로 지목한 60년대는 전후의 암울함이 지배하던 50년대를 극복하며 유토피아적 전망으로 충만한 시대를 열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경제적 부흥기로 정의되는데, 전후 재건사업에 따른 경기회복과 완전고용으로 가계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소비문화가 봄을 이루었다.²¹⁾ 당시 런던 시민의 가처분소득은 전전(戰前) 수준에 비해 배가(倍加)되어, 노동자들도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최신가전제품과 포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경제적 번영은 패션, 음악, 그리고 사진, 광고, TV, 영화를 망라하는 미디어 산업의 발달로 이어져 비틀즈, 롤링 스톤즈, 트위기 등의 스타들로 대변되는 전위적 대중문화가 꽃을 피웠다.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60년대는 자유와 반항, 창의와 실험, 반전과 평화, 관용과 세계시민적 개방성 등의 에토스를 포괄하는 진보의 이상과 동의어를 이루며, 런던은 그 진앙지가 되었다. 1966년 4월 15일자 『타임』

20) A. O. Scott (2009), “Beware of Strangers Bearing Champagne”, *The New York Times*.

21) 60년대 영국의 사회사에 관한 개관은 Roy Porter (1995), pp. 344-363 참조.

은 ‘런던: 동요하는 도시(London: The Swinging City)’라는 제목의 커버스
 토리에서 당대 런던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During the shell-shocked 1940s, thrusting New York led the way, and in the uneasy 50s it was the heady Rome of *La Dolce Vita*. Today, it is London, a city steeped in tradition, seized by change, liberated by affluence [...] In a decade dominated by youth, London has burst into bloom. It swings; it is the scene. This spring, as never before in modern times, London is switched on. Ancient elegance and new opulence are all tangled up in a dazzling blur of op and pop. The city is alive with birds (girls) and beatles, buzzing with minicars and telly stars, pulsing with half a dozen separate veins of excitement.

전쟁 신경증을 앓던 40년대에는 야심찬 뉴욕이, 불안한 50년대에는 「라 돌체 비타」의 로마가 선도적인 도시였다. 오늘날은 전통이 풍부하고 변화에 휩싸인, 부유함에 의해 해방된 런던이 주도한다. 젊음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런던은 활짝 꽃피었다. 런던은 회전한다. 장관이다. 이 봄, 전에 없이 런던은 스위치가 켜졌다. 고전적 우아함과 새로운 화려함이 오퍼트와 팝아트와 팝아트의 눈부심 안에서 결합했다. 이 도시는 새들(소녀들)과 딱정벌레들(비틀즈)과 함께 살아있으며, 미니카와 TV 스타들과 함께 웅성대며 각양각색의 흥분으로 맥박치고 있다.²²⁾

이런 정신적 조류는 기성 제도권 문화의 엘리트주의와 배타성에 도전하는 하위문화 및 대항문화가 부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여, 런던 빈민가 출신의 노동계급 청년들로 구성된 테디 보이즈(Teddy Boys), 카나비街的 말쑥한 수트를 차려입은 모즈(Mods) 등이 ‘스윙잉 식스티즈’(Swinging Sixties)의 청년 문화를 구가하게 되었다. 특히 60년대를 특징짓는 패션, 디자인 및 라이프스타일 혁명의 기수들 — 아르테코풍의 여성복점 비바

22) *Time*, 1966.04.15, p. 32.

(Biba)를 개장한 바버라 홀라니키(Barbara Hulanicki), 대중을 위한 디자인 실내용품점 해비탯(Habitat)을 연 테렌스 콘란(Terence Conran), 미니스커트의 창안자로서 기존의 억압적인 복장규범을 전복하고 복식혁명을 이끈 메리 퀴트(Mary Quant) 등은 모두 ‘혁신과 도전’이라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일상의 영역으로까지 들여왔다.²³⁾ 이들이 제안한 생활양식의 변화 혹은 스타일 혁명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정치적 입장의 표명에 다름 아니었다. 요컨대 로이 포터의 표현대로, 60년대의 문화는 ‘정치적으로 이상주의적이고 비교조적인 좌파성향’으로서 ‘청년문화와 상업주의, 귀족적 양식과 새로운 포퓰리즘 간의 보기 드문 결합’이었다.²⁴⁾

영화의 전체적인 프로덕션 디자인과 함께, 디크스-미로(Dicks-Mireaux)의 의상, 폴 잉글리시비(Paul Englishby)의 음악, 벤 스미스(Ben Smith)의 미술은 당대 시대상을 충실히 재현해 내었다. 특히 『티파니에서 아침을』(*Breakfast at Tiffany's*, 1961)의 오드리 헵번 룩을 비롯한 고층된 의상이나, 60년대 런던의 사교계를 보여주는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하운드트랙, 그리고 번-존스(Edward Burne-Jones)의 미술작품이 입찰되는 크리스티 경매장 세트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 영화의 세트는 단지 연기를 위한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작품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컬러 필터를 통해 색상을 조작하거나,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한 양식화된 세트는 화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이에 비하면 인물은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진 12, 13의 장면들은 광각렌즈를 사용해 깊은 심도로 촬영한 딥 포커스 쇼트들로서 세트 자체를 화면의 중심으로 부각하고자 한 연출의도에 부합한다. 요컨대, 세트, 실내장식, 의상, 촬영 기법이 모두 60년대의 특수한 스타일의 구현이라는 통일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23) Christopher Breward et al. (2006), *Swinging Sixties: Fashion in London and Beyond 1955-1970*, London: V&A, p. 15.

24) Roy Porter (1995), p. 363.



[사진 12]



[사진 13]

세르픽 감독은 역시 60년대를 다룬 그녀의 전작 『윌버 자살을 원하다』(*Wilbur Wants to Kill Himself*, 2002)에서 당시 유럽의 뉴웨이브가 품은 그 도저한 에너지를 그려낸 바 있다.²⁵⁾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어떤 영화들에서 시대란 단지 세트 디자인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만 『언 에듀케이션』은 정확한 시대 재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라고 말하며 이 영화에서 시대 배경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지적했다.²⁶⁾ 이런 맥락에서 주인공 제니는 60년대 세대의 한 전형으로 볼 수 있으며, 기성 가치에 대한 그녀의 반항과 이탈은 장 룩 고다르(Jean-Luc Godard)의 『네 멋대로 해라』(*À Bout de Souffle*, 1960)의 그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샌두의 논평은

25) A. O. Scott (2009).

26) Sarah Lyall (2009).

타당한 것이다.²⁷⁾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진정한 로맨스는 제니와 데이빗의 관계가 아니라, 제니와 ‘그녀 내부의 가능성, 그녀 앞의 미래, 그리고 살아있음의 환희’ 간에 존재한다는 에버트의 논평 또한 당대의 시대정신을 이 영화의 핵심으로 파악한 비평의 한 예이다.²⁸⁾ 감독 역시 제니가 상징적 인물임을 시사하며, 제니와 그녀가 속한 시대 간에는 명시적인 유비관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한다.²⁹⁾ 즉 60년대가 전후의 침체된 50년대를 지양하고 한층 더 낙관적인 미래로의 도약을 꿈꾸며 변화와 상승의 시대정신을 버려내었던 것처럼, 제니 역시 진부하고 협착한 런던 교외의 삶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부과한 경계 너머로 나아가려 하고 자아와 세계를 탐험하려는 의지와 열정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이다.

3. 결론

문학과 영화 간에는 근본적인 매체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두 장르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의미를 창출하고 전달한다. 『언 에듀케이션』처럼 문학 텍스트를 영화로 각색한 경우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의 독자적 재생이 아니라, 그것을 영화의 견지에서 영화의 문법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문학이 언어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장르임에 비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원천은 시각적 영상이며 심지어 문학작품을 각색한 영화조차도 일차적인 정보원은 영상이며 언어는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영화 『언 에듀케이션』은 각본, 촬영, 미장센, 편집, 음향, 연기 등 스크린이 정보를 전달하는 수많은 언어체계를 통해 원작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했다. 결론적으로 바버의 원작과 영화 간에는 유사한 장면과 동일한

27) Sukhdev Sandhu (2009), “An Education”, *The Telegraph*.

28) Roger Ebert (2009), “An Education”, *The Suntimes*.

29) Sarah Lyall (2009).

대사 등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영화는 원작과는 다른 독자적인 창작 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했다. 특히 주제 면에서 영화는 계급사회에서의 한 개인의 자전적인 성장담을 60년대 영국의 문화와 시대상에 대한 탐구로 확장하고 있다. 순수하면서도 영악하고, 어리지만 동시에 조숙한 면모를 보이는, 소녀도 아니지만 아직 여자도 아닌 경계에 선 인물 제니를 통해, 1961년의 런던 혹은 경계에 서 있던 한 시대-전후의 몰개성한 50년대에서 이제 곧 청년문화의 폭발적인 개화를 경험하게 될 60년대로 이행하던-를 환유하고 있는 것이다.³⁰⁾ 그 결과 영화 『언 에듀케이션』은 북고풍의 정서와 취향을 간직하면서도 절제된 감수성과 비범한 통찰을 선보이는 한 편의 기억할만한 시대극으로 재창조되었다.

30) Ann Hornaday (2009), "An Education", *The Washington Post*.

참고문헌

【자 료】

- Barber, Lynn (2009), *An Education*, London: Penguin.
- _____ (2009), “My Harsh Lesson in Love and Life”, *The Observer*, 2011.07.05.
<http://www.theguardian.com/culture/2009/jun/07/lynn-barber-virginity-relationships>
- Hornby, Nick (2009), *An Education: the Screenplay*, New York: Riverhead.
- Scherfig, Lone (2009) dir., *An Education*, BBC Films.
- Time*, 1966.04.15.

【논 저】

- Bourdieu, Pierre (2010),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_____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ed. by J. B. Thompson), Cambridge: Polity.
- Breward, Christopher et al. (2006), *Swinging Sixties: Fashion in London and Beyond 1955-1970*, London: V&A.
- Turner, Bryan S. (1998), *Statu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orter, Roy (1995), *London: A Social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adshaw, Peter (2009), “*An Education*”, *The Guardian*, 2011.07.05.
<http://www.guardian.co.uk/film/2009/oct/29/an-education-review>
- Chisholm, Anne (2009), “*An Education* by Lynn Barber: Review”, *The Telegraph*, 2011.07.05.
<http://www.telegraph.co.uk/culture/books/5712278/An-Education-by-Lynn-Barber-review.html>
- Ebert, Roger (2009), “*An Education*”, *The Suntimes*, 2011.07.05.
<http://rogerebert.suntimes.com/apps/pbcs.dll/article?AID=/20091021/REVIEWS/910219994>
- Hornaday, Ann (2009), “*An Education*”, *The Washington Post*, 2011.07.05.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10/29/AR2009102901272.html>

Lyall, Sarah (2009), “A Bud About to Burst into Bloom”, *The New York Times*, 2011.07.05.

<http://www.nytimes.com/2009/10/04/movies/04lyal.html>

Orr, Deborah (2009), “*An Education*”, *The Independent*, 2011.07.05.

<http://www.independent.co.uk/arts-entertainment/books/reviews/an-education-by-lynn-barber-1708378.html>

Sandhu, Sukhdev (2009), “*An Education*”, *The Telegraph*, 2011.07.05.

<http://www.telegraph.co.uk/culture/film/filmreviews/6461903/An-Education-review.html> AnEducation

Scott, A. O. (2009), “Beware of Strangers Bearing Champagne”, *The New York Times*, 2011.07.05.

<http://movies.nytimes.com/2009/10/09/movies/09education.html>

원고 접수일: 2013년 12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월 20일

계재 확정일: 2014년 2월 4일

ABSTRACT

The Film Adaptation of *An Education*

- A Representation of British Society of the 1960s -

Choe, Jian*

An Education, Lynn Barber's critically acclaimed memoir of 2009, stands in the continuum of Bildungsroman. Set in London of 1961, it is concerned with a schoolgirl's affair with an older duplicitous suitor, which leads her to a severe sense of disillusionment. This coming-of-age story has been brought onto screen by Lone Scherfig. A BBC Films product, adroitly scripted by Nick Hornby, the film extends Barber's personal account into a heritage piece which explores a wider trend of the memoir's setting or London of the 1960s. The era itself is the main subject of the film, which brilliantly captures the socio-cultural cachet of the Swinging Sixties, the quintessential decade of political idealism and counter-culture movement. The main character Jenny, a larger-than-life figure, emblemizes the sixties' ethos. As a borderline character who embodies such contradictory qualities as aspiration/apprehension, naïveté/knowingness and vulnerability/strength, she evokes the world in the liminal state shifting from the bleak postwar fifties to the highly charged utopian sixties. In this

* School of English, Kyung Hee University

manner, the original text has been recreated into a defining film on the early 1960s with its period feel braced by superb costume, music and production design.

